

“전당·CGI센터 연계 문화콘텐츠 개발 역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한 ‘혁신도시 연계 광주발전 전략토론회’가 1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새정치 장병완 의원 주최

‘혁신도시 연계 광주발전 전략 토론회’

광주발전을 위해서는 빛가람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미래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문화기술, 지역특화 정보통신 및 사물인터넷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기존 CGI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연계한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12일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이 주최한 ‘혁신도시 연계 광주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조인형 연구위원(광주발전연구원)은 ‘빛가람시대, 지역전략산업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와 문화기술 그리고 ICT 분야에 대한 3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 분야의 경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들어설 전기연구원 분원, 그리고 에너지기술원 분원 등 공공기관과 지역 에너지기업을 연계시켜 광주를 ‘에너지밸리’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또 문화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혁신도시로 이전한 문화예술 관련기관과 남구에 들어설 CT연구원 그리고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의 연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연구위원은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 노령친화시설을 이용한 고령친화스마트케어 사업과 혁신도시 이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도 광주를 ‘에너지 허브도시’로

CT-첨단실감콘텐츠클러스터 구축 사물인터넷 강화

지역 대학 맞춤형 인재 길러 고용창출로 연결해야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진흥원 등과 남구에 들어설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를 활용해 지역 특화 IOT 사물인터넷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허브도시 추진=토론회자료 나선 이인화 교수(조선대 환경공학과)는 “국내 최대 에너지 기업인 한국전력이 혁신도시에 들어옴에 따라 에너지 분야의 성공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광주가 첨단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허브 도시’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첨단 신재생에너지 분야 집중육성과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및 전기연구원 분원 유치에 따른 연구 인프라의 활용, 그리고 관련 지역대학의 맞춤형 인재육성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생산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연료전지를 활용한 도심형 분산전원 스마트그리드, 태양광 생산 및 저장, 바이오수소 생산, 지열을 이용한 지오파 에너지파크 등 차별적 기술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캐칭 활성화 사업 등이 지원된다.

윤 과장은 “광주 CT(문화콘텐츠기술) 연구원과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의 연계가 강화되면 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 인력 등 전문인력 교류협력으로 성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콘텐츠 창조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밸리 조성 위한 우수 인재 확보=김동섭 한국전력공사상생협력처장은 “에너지산업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지역 우수 인재 및 핵심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의 전기·전자 분야 전공자 증원과 함께 맞춤형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산·학·연 R&D 활동이 적극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R&D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협력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연구 인력과 중소기업 일대일 매칭을 통해 지정과제와 중기지원과제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장병완 의원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성도 KTX 호남선 완전 개통,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광주의 전략산업들의 발전 전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전략·방안을 수립해 광주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앞으로 혁신도시 내 한전 등의 입주기관들이 고립화하지 않고 도시첨단산업단지과 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내 기반들과 잘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사회적기업 30억 신보상품 운용

광역자치단체론 전국 최초

600여 업체 자금난 해소 도움

전남도가 지난달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자금 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3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신용보증상품’ 운용에 들어갔다. 담보 능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신용보증상품’은 민선 6기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신용 및 담보능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상품 출시 후 한 달만에 60여 업체가 상담을 하고, 6개 기업에서 2억여원을 신청했다. 상담받은 대부분 기업들이 상품 이용 의사를 보여 이후 신청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첫 지원을 받은 목포 사회적기업 ‘사람과 사람’ 관계자는 “사업 확장과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자금이 필요해 금

융권을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해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때마침 전남도에서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을 출시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신청, 쉽고 빠른 대출로 긴급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순천친환경섬유협동조합’ 관계자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이자 부담이 상당했는데, 이번에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포장디자인 개선 등에 활용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댄트면 홍보 및 상담에 나설 방침이다.

박노원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신용보증을 통해 도내 600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30일 DJ센터 사장 후보자 첫 인사청문회

윤재만씨 1순위

광주시가 도입·시행하는 산하 기관장 첫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첫 대상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다.

광주시는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오는 20일께 청문 요구서를 시의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달 협약을 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공사와 공단, 광주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 등 모두 8곳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공모에는 6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윤재만(59) 전 한국무역협회(KITA)

상임감사와 임형진(56) 전 광주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2명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추천됐다.

윤재만 광주시장은 13일 1명을 내정하고 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청문회는 자질과 능력평가와 함께 도덕성 검증도 하게 돼 있다. 병역, 납세, 학력, 재산 등에서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김대중컨벤션센터 시장은 1대부터 4대까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이 임명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임기 3년에 연봉은 91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별도 지급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새 정무특보 이해명씨 내정

광주시가 새 정무특보로 이해명(58)씨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전 민주당 광주 북구를 지구당 사무국장과 지방분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윤정현 광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시는 지난달 장현정 정무특보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후임 공모에 나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이 내정자를 선택했으며,



행정절차를 밟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식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윤시장의 시장 철학을 잘 이해하고 정치적 경연도 풍부해 정무특보의 역할을 잘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36-0110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한달 3~4만원!!

둘째, 전부 무료

셋째, 맞춤 귀속형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1회 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242,000원입니다.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강안본점 02)2248-5600 ◆충무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경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입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서구)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일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역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대전(동구)본점은 대한보청기 우송대학교 언어·청각학과가 공동 연구개발 및 연구지원 곳입니다.